

같이 보기

: 미디어 속 직업병

사무공간과 화장실, 학교 등에서 우리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곳곳을 청결하게 해주는 청소노동자들 덕분이다. 코로나19로 위생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요즘, 청소노동자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영화 <선사인 클리닝>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편집실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청소노동자에게 나타내기 쉬운 병

영화 <선사인 클리닝(2009)>을 통해 본
만성폐쇄성폐질환



일상을 쾌적하게 만드는 숨은 손, 청소노동자

로즈(에이미 아담스)는 고등학교 시절 치어걸 리더로 활동하면서 풋볼팀 쿼터백과 연애하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었다. 화려한 시절을 뒤로하고 현재는 아들을 키우며, 청소로 생계를 유지하는 싱글맘이다. 만년 백수인 여동생 노라(에밀리 블런트)와 일 벌이기 좋아하는 아버지도 로즈가 챙겨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로즈는 범죄현장 청소 일을 맡게 된다. 동생 노라와 함께 차린 청소회사 이름은 선샤인 클리닝. 단순한 청소가 아니다. 피와 생체폐기물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래서 강력세척제, 냄새제거제, 살균제는 물론 보호복은 필수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던 로즈에게 범죄현장 청소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는 일이다. 로즈는 청소일을 한다며 '하녀 보는 듯한' 친구들의 시선에 상처받는다. 노라는 범죄현장을 청소하면서 자살한 어머니를 떠올린다. 노라가 청소를 하던 중 화재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한 뒤, 사업은 망할 위기에 처하고 갈등은 고조된다. 영화 <선샤인 클리닝>은 인생에서 패배를 경험한 가족들의 성장담이자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그리는 영화다.

영화 속 두 자매처럼 독한 세제를 사용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근골격계질환과 함께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 있다. 바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다.

독한 세제 사용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소방관이나 탄광노동자에게도 흔히 발생한다. 청소노동자처럼 독한 세제를 사용해 장기간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도 걸릴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회복될 수 없는 기도 폐색으로 폐 기능이 서서히 저하된다. 유해한 입자나 가스를

마셔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점차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된다. 매우 느린 속도로 서서히 손상되어 질환을 인지하는 것이 늦다.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빠진 이후다. 심할 경우 운동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암·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다음으로 흔한, 사망률 4위의 질환이다. 폐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통한 빠른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완치하는 질환이 아닌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이다.

청소노동자들은 깨끗하게 닦기 위해 수시로 세제나 락스를 사용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런 제품에는 동물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환경호르몬독성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성이 강해 체내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폐 깊숙이 들어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락스와 같은 독한 세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의심되나요? 체크해보세요!

- 만성적인 기침, 호흡곤란, 가래 등이 발생한다.
 - 화학물질, 가스, 매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 쌉쌉거리는 천명음이 동반된다.
 - 40세 이상이다.
 - 위험인자 노출 과거력이 있다(흡연, 직업성 분진 등).
 - 만성피로가 지속되며 체중이 감소했다.
- *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TIP

만성폐쇄성폐질환, 이렇게 예방해요!

- 금연하기
- 환경 친화적 제품 사용
- 향산화 채소 섭취
-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차단
- 정기적으로 운동하기

